



책 속의 밑줄 긋기

다시 태어나도록 엮어매는 원인이 되는 욕망에서 생긴 어떤 것도 없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뚝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살아 있는 존재들이건,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조그맣거나 거대하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다.

〈숫타니빠따 계승 16〉중에서
〈숫타니빠따 계승 71〉중에서
〈숫타니빠따 계승 146, 147〉중에서

Books

천태지자 등 대가들 주석서 모아 종합 고찰

범망경보살계본취해

이원정 편 | 목정배 역 | 운주사 펴냄 | 2만8천원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의 대표적 계율서로 큰 영향을 끼쳐 온 <범망경보살계본>에 대해, 천태지자 등 대가들의 주석서를 하나로 모아 종합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경서의 죄들에 대해 간결하게 표로 정리, 한눈에 죄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계(戒)는 계정에 삼학 중 첫째로, 불교수행은 바로 계를 받들어 지킴에서 시작된다. 이는 대소승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대승불교권에서는 특별히 대승보살계라는 이름으로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계율을 명시하는데, 이를 살하는 대표적 경전이 <범망경>이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범망경>은 상권에서 보살의 심지법문을 설하고, 하권에서는 조발심 보살이 성불로 나아가는 데 지켜야 할 10계와 48계계를 설하고 있어, 대승불교의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존중되고 널리 유포되었으며 주석서도 많이 저술됐다.

의 주석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원정 거사가 체계적으로 편집 정리했다. 여기에故 목정배 교수가 1980년 대 후반 번역해 놓은 원고를 생전에 마지막 출판물로 계획하다가 갑작스레 입적하는 바람에 후학들이 1주년 기일을 맞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대의 정평 있는 주석서들을 경문에 따라 거의 온전하게 완역함으로써 <범망경>에 대한 종합주해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계율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큰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책에 수록된 주석서들은 천태종을 개창하여

우익지옥은 중국불교의 모든 교학과 계율,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리 융합해 중국불교의 최종 완성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고승으로, 계율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저술을 남기고, <범망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따라서 이전의 주석서들과 함께 우익지옥의 종합적 해설을 하는데 비교하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또한 주석서의 정통을 따르면서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번잡한 죄상(罪相)들을 다양한 표로 모아 정리함으로써 책 전체 내용을 구조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계율에 관심을 지니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나 지금 배워야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교과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1217@hyunbul.com

정평난 주석서 온전하게 완역 번잡한 죄상 다양한 표로 정리

중국불교 전체의 틀을 확립한 천태지자의 <보살계소(菩薩戒義疏)>를 기본으로 하여 명나라 때 4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두 고승인 운서주평의 <범망경심지품보살계의소발은(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과 영봉 우익지옥의 <범망경합주(梵網經合註)>이다.

이 책의 편찬자는 이들 세 주석서를 <범망경>의 본문 아래 순서대로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며, 천태지자와 운서주평의 해석에 미흡하거나 의문스런 부분을 보충해 주해를 단 우익지옥의 합주를 학술적인 정수라고 보고,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모든 내용을 통합시켜 다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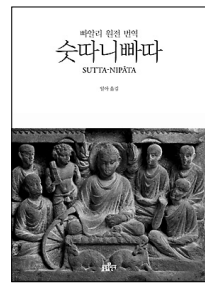
저자 목정배 교수는?

경남 밀양시 태어났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계 사시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새한국불교대회 이사장, 성철선사상 연구원장, 한국불교학회 회장, 제1회 한국불교학술대회 회장, 서울대학교학원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초기불교단위의 형성에 대하여> (계율론), <대승보살계사상> (삼국시대의 불교) (범망경술기)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와 예술)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계율학) (세제불교의 이론과 역사) 등 다수가 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숫타니빠따

일야 옮김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소설 제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로 널리 알려진 불교경전 숫타니빠따는, 담마빠따(법구경)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독되는 고전 중 하나다. 짧은

숫타니빠따가 제자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나누는 문답이 있어, 죽음·늙음·자유·욕망·깨달음 등에 대한 붓다 가르침의 가장 초창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전이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숫타니빠따는 빠알리어로 'sutta-nipata'인데, 'Sutta'가 '경'이고 'nipata'가 '모음'이므로 '숫타니빠따'를 뜻풀이하면 '경의 모음'이다. 72개의 작은 '경'들이 모여 탄생한 숫타니빠따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아직 불교라는 종교의 체계가 잡히지 않던 때, 깨달음을 이뤘다는 짧은 붓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 가운데는 구도 열정으로 붓다를 마주한 이뿐 아니라, 짧은 붓다를 가늠해 보고자 붓다에게 도전하는 이, 진정한 붓다인지 확인하려고 붓다를 시험한 이도 있었다. 붓다 앞

에 선 그들은 폭력, 서두름, 죽음, 늙음, 자유 등에 대해 품던 의혹들을 붓다에게 던지고, 붓다는 질문에 친절히 답한다. 붓다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물음표들은 하나 하나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맑아진 질문자들은 하나둘씩 붓다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이들 앞을 또 하나의 장벽이 막아지고 있었다. 바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제자들은 붓다에게 끊임없이 물었고, 붓다는 하나씩 짚어 가며 답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맞는 자세, 재물을 향한 마음에 대해 붓다는

72개의 작은 경들이 모여 탄생 전세계서 가장 애독되는 고전 경전

설명했고, 그 말들이 모여 수행자의 '계율'이 되었다. 수행자의 몸가짐에 대한 붓다의 말 속에는 구시대를 깨뜨리고 새시대를 여는 사상이 담겨 있다. 붓다는 '출생'에 의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성자가 된다고 자주 말한다. 출생 신분이 한 사람의 일생을 가르던 철저한 신분제 속에서, 행위에 의해 성자가 된다는 선언은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외침이었다. 이 목소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숫타니빠따에는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불교 최초의 경전으로 꼽히

는 숫타니빠따인 만큼, 후대에 가미된 화려하거나 거창한 꾸밈 없이 담백하고 쉬운 말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 장면들이 그려진다. 이것이 숫타니빠따를 보면 '붓다가 르침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이유이자, 숫타니빠따가 인류의 고전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이다. 숫타니빠따는 국내에 주로 일역이나 영역으로 소개돼 왔다. 유일한 빠알리 원전 번역으로는 전재성 박사의 번역본이 있는데, 인연담과 주석을 합쳐 분량이 방대해진 나머지 대중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읽힌 범정 스님 번역본도 스님 입적과 함께 절판된 지 수년이 흘렀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역으로 인한 오류를 줄여 붓다 가르침의 순수한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숫타니빠따 번역본에 대한 갈증이 늘 있어 왔다. <빠알리 원전 번역 숫타니빠따>를 출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을 옮긴 일야 스님은 6년 가까이 수녀로 생활하다가 가톨릭보다는 불교가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판단, 종신 서원 전에 수녀원을 나와 범정 스님이 추천한 사찰로 출가를 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직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빠알리 경전을 국내에 알리는 데 오랜 세월 진력해 온 분이다. 그 열정이 <빠알리 원전 번역 숫타니빠따>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어,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서도 흐트러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주일 기자

자녀 위한 기도는 부모사랑의 극치

불교의 자녀사랑 기도법

김현준 지음 | 효림 펴냄 | 5천원



"정녕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가말로 부모 사랑의 극치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의 표출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부모의 진정한 사랑!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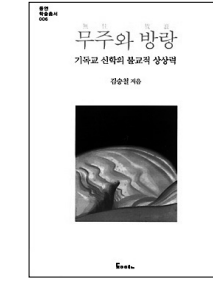
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를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간의 다생다겁 맺은 깊은 인연부터 부모님들의 자녀사랑법을 중심으로 상세한 기도방법을 실은 <불교의 자녀사랑 기도법>이 새롭게 출간됐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이자 월간 <법공양> 발행인 겸 편집인인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사랑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정립하고 생활화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른바 '살려가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번 책은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을 잘 명상하고 응유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녀사랑이 완성되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대해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한다. '업을 녹이는 참회기도' '108배를 올리며' '염불하며 관상하라' 등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은 물론, 각 장마다 불교적 자녀교육의 다양한 예화와 자녀를 교육하면서 경험한 저자 자신의 깨달음을 함께 수록하여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총 3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집착부터 비워라>에서는 여러 가정문제의 원인이 '나'의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되짚어 보고, 제 2장 <불교의 자녀 사랑법>에서는 사무량심(四無量

心)에 기초한 자녀사랑법을 논한다. 또 제 3장 <자녀를 위한 기도법>을 통해 근심과 걱정 대신 자녀를 향한 축원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도록 기도하기를 당부하며, <부록: 효도로 부모사랑을>을 끝으로 효도로서 부모와의 맺힌 업을 녹이고, 향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릇되게 하거나 퇴보하는 길을 걷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저자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을 실천토록 당부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보다 좋은 인연, 참된 결실로 거두어 가길 염원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와의 대화 통해 바라본 기독교 신앙

무주와 방랑

김승철 지음 | 동연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연구해 온 신학자 김승철 교수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기 이해를 새롭게 시도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불교로 대표되는 동양종교문화와 기독교로 대표

되는 서양 종교문화의 상호성과 상이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서들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는 불교철학의 무주(無主)의 개념과 서구 근대 해체주의의 용어인 방랑이라는 개념으로 불교와 기독교 사상의 본질을 풀어 합류점을 찾아낸다. 또한 선불교의 즉비의 논리를 기독교 신학에 대입해 서구해체 신학과 마주 댈으로써 기독교 신학이 넘지 못하는 이분법적 논리, 서구철학이 아직도 그 논리에 서 큰 도약을 이루지 못한 변증법 논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